

그리스도 영성과 심리진료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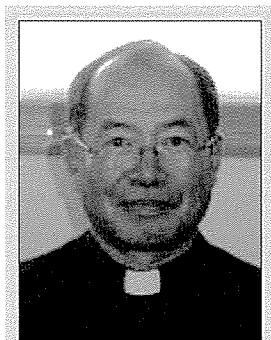
그리스도교 영성은 오직 내면의 감각으로 감지되는 내부적인 영역으로
 인간실존의 근본이 되어 인생의 모든 차원에서 삶으로 표현되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여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영성은 융합을 통하여 심리와 정신세계를 통찰하고 치료적인 도구가 되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1. 서론

그리스도교 영성과 심리치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면, 버나드 티렐 신부의 그리스도 요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 켄라피’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심리나 영적 영역을 불문하고 인간의 분노, 두려움, 우울, 불안, 및 죄의식 등의 고통에 대해서 정신/심리치유 및 영적인 성숙과정 즉 의학적인 치유단계에 도달하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내는 중요한 보물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버나드 티렐 박사는 그리스도 요법의 창시자이자 실천가이다. 스스로가 중독과 신경증이란 “악마”와 싸워온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직접 체득한 진실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요법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정립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유 병 일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이태원본당 주임신부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그리스도 교회에서 영성지도 또는 신앙체험, 기도와 관상 통하여 치유하는 그리스도 요법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심리치료 영역을 완전한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티렐 신부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그리스도 요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병을 약물이나 생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물리적인 진료방법을 초월한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사랑, 식별, 명료화하는 심리의 기본적인 과정을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그리스도요법-치료사가 기도를 통하여 환자와 함께하며 내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정상화를 도와주는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 글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고, 티렐 신부의 그리스도 요법의 개요를 소개하고 영신수련을 통한 심리/심신치료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그리스도교 영성

영성이란 인간의 외적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감각으로 감지되는 내부영역으로 이를 두고 영적세계라 하고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아버지 하느님의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내면의 감각으로 하느님을 감지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영적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내면의 영역은 세상과 육체가 감싸고 있지만 물질과 영성은 엄연히 서로 다른 영역으로 두 영역 간에는 혼선을 빚어내기도 한다. 마치 빛이 물방을 통과할 때 굴절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인간의 육체와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영성은 '여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여정이란 어떤 본질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본래의 것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초월의 나선형"적 상승 이미지라 표현하는 치유와 성숙을 위해 떠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은 인간 실존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차원 즉 정신적 신체적인 면을 총망라하여 삶의 형태로 표현되어 진다. 따라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심리와 정신세계를 통찰하고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일반 학문의 영역으로도 자리매김 할 것이라 전망한다.

3. 그리스도와 정신-심리치유

인간의 깊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로마 8,26)이 죄, 신경증, 중독증에 시달리

티렐신부의
그리스도요법은
신앙, 윤리, 심리 및
중독으로부터
탈출, 등
전환의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성장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지혜와 통찰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복잡한 문화의 형태로 이루어진 인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미묘한 작용을 이해하는 깊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심령)의 본성적 작용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와 인간의 만남을 어떤 논리나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처방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요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오직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와 인간의 만남을 심성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티렐 신부는 그리스도 요법이란 단어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주요 전환요소인 신앙-전환, 윤리-전환, 심리-전환, 중독-전환 등 4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전환의 요소에서도 파괴된 인간의 모습에서 생명이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발본(拔本) 전환과 아직 남아있는 파괴적인 성향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지속-전환이라는 2가지 기본 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영은 언제나 삶의 방식의 전환 과정에서 활동하시고 인간은 전환과정을 자신의 자유로 선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앙-전환

신앙-전환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전환을 한 사람은 사도 바오로처럼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필립 3,17). 그리스도 신앙인은 현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상의 것(골로 3,1)을 추구함으로써 그

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풍부하게 느끼고 사는 것이다. 부연하면 떠나고 향하는-전향의 과정은 높고도 높은 '초월의 나선상' 단계로 반복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윤리-전환

윤리-전환은 일상적 체험, 철학 및 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윤리-전환도 근본적인 전환과 지속적인 전환의 두 단계가 있다. 파괴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가치로 향하는 180도의 전환 단계이고, 지속적인 윤리-전환은 변질된 맹종에서 비롯되는 유혹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 윤리-전환이 된 가치의 새로운 세계로 윤리의 실천으로 보다 충만한 삶을 향하는-전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전환은 현존하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심리-전환

“심리-전환”은 신경증적인 상태와 그 기능하는 방식이 건강한 상태 쪽으로 떠나는-변환을 의미한다. 심리-전환도 근본적인 단계와 지속적인 단계로 이뤄져 파괴적인 것에서 떠나는-변환을 경험하여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로 향하는-전향이 있다. 이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신경증의 의미와 신경증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중독의 전환

중독이라는 용어는 헤로인, 술, 음식, 담배, 도박 및 사람이나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강박적,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의미한다.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중독은 정

그리스도요법은
영성과 심리를
융합하는 시도로서
심리학과 정신치료,
영성과 신앙의
본질을 상호적으로
확실한 이해에
바탕을 가지게 된다.

상적 세포 활동의 유지를 위해 신체에 중독 물질의 존재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대상, 감각, 심지어는 사람에게 까지 중독 된 경우 그런 만족을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중독은 중독의 대상에서 근본적으로 떠나는-변환과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향하는-전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주 동맹의 12단계 모델을 살펴보면 첫 단계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스스로 생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다”이다. 이렇게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은 중독 된 사람이 중독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의 정신역학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에 의존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믿음대로, 하느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따른다.

영성-심리 융합으로서의 그리스도요법

그리스도요법은 영성과 심리를 융합하는 시도로서 심리학과 정신치료, 영성과 신앙의 본질을 상호 이해하는 것에 바탕을 두게 된다. 만셀 패티슨(E. Mansell Pattison)은 영성-심리가 융합하는 기본적 관계를 심리적 목표를 향한 심리적 수단, 영적 목표를 향한 심리적 수단, 심리적 목표를 향한 영적 수단, 영적 목표를 향한 영적수단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영성-심리적 융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요법은 영성과 심리 각 영역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과 기본적 관계를 존중하며, 영적 자아실현의 표상을 “내면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전승을 위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요 중심이다.

그리스도요법에서 중심 주제는 성령의 도움



으로 깨달음을 통한 근본적인 전향과 치유와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전향이다. 영적 목표와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청원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청하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스런 친교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을 성사를 통하여 성사에 진정한 참여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영적 목표를 실현시키기는 기본적인 예이다.

그리스도요법 치료사

이상적인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상담(정신치료)과 영성지도의 분야에서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두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 방법, 기술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융합적 기능을 하는 자다. 그러므로 통합된 방식으로 영적,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활동하고 성령의 은총을 도움의 도구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성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의 목표를 불러일으키도록 돕는다.

훌륭한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상담-조언자(정신과 의사)와 함께 진정으로 본성에 적합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어 영적 성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영성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요법은 그리스도 심리학적 상담의 목표를 포함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요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전인적인 치유를 목표로 윤리와 신앙-전환을 이룩한 사람이 신경증이나 중독적 변질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 둘째 상처받은 사람의 대인관계 공포증을 치유하여 그리스도적 대인관계로 완전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 셋째 심리적으로 미숙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닮음으로써 심리적 성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넷째 인성으

로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에 힘입어 자신의 느낌을 익히는 과정과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분노, 두려움, 죄의식, 슬픔과 같은 느낌의 치유나 정화를 바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으로 깊이 동화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심리적 발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등이다.

그리스도요법-치료사의 자격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어둠과 빛을 진정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치유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전환과 자아를 의식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정신치료적인 만남에서 환자와 치료자는 언어 및 감각적 자극을 넘어서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필요한 지속적인 신앙생활, 윤리 및 다른 모형의 전환과 자아의식이 결핍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나눠 줄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로로 사도는 성령의 사랑과 지혜라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다운 영적 식별과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1고린, 2,14).”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윤리 가치를 생활로 지켜가야 진정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스도요법-치료사의 삶 속에 지속적인 신앙과 윤리-전환이 명백해야 내

이상적인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상담
(정신치료)과
영성지도의 분야에서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두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과
방법, 기술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융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하는 자이다.

답객이 찾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올바른 신앙과 이에 대한 “지성-전환”의 체험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여러 면에서 진정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신앙에 대한 지성-전환의 경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삶보다는 하느님의 섭리가 자기 개인의 내외적으로 친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하느님과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함께 만족시킬 줄 알아야 하고, 알파카게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교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의 결핍 때문만이 아니고 하느님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난과 부, 건강과 질병, 명예와 모욕 앞에서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받은 상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14세기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을 통하여 더 잘 배운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기도의 스승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자신의 개인적 기도 체험을 반추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실존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삶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에 머물고 자유롭게 성령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산다. 그는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에 머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찾아오는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빛과 그의 선택과 사랑을 내면의 눈으로 실현하고 계발해야 할 자질과 생명을 주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기도의
스승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자신의 개인적
기도 체험을
반추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고 촉진시키며 풍요롭게 자질들을 식별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훈련은 항상 풍요롭고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마태 5,11-12)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식별하여 때로는 고통과 순교에 이르는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요법 지도자의 효과적인 실존 식별의 필요조건

실존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목록 식으로 나열해 보고자 한다.

- ①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의 도구라는 자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성령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내적으로 맑고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 ③ 그리스도를 관상하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 ④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위해 매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받아들여야 한다.
- ⑤ 사람을 해방시키는 진정한 가치와 진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⑥ 모든 것에서 열려있는 영혼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⑦ 경청하고, 타인의 현존과 욕구에 충분히 동참하기 위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⑧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태도보다는 이해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⑨ 조건 없는 이해와 사랑으로, 진정한 영적-인간적 가치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⑩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삶을 침입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치유과정에 필수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적인 여유”와 “심리적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⑪ 도움을 청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유혹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유혹이 실존에 미치는 내적인 나약함을 알아차리고 알려줘야 한다.

효과적인 실존을 명료화하는 몇 가지

필요조건들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실존을 명료화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해롭고 파괴적이며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신념을 알아차리고, 건강과 긍정적인 통합을 이루는 삶을 식별하고, 평화와 감사, 확신과 사랑 그리고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

②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그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신념과 행동이 들어온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해주고, 그릇된 태도가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여 자기를 파괴하는 “내면의 악”을 떠나고 “선”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③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신념과 유혹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저항하는 방법을 알아차리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그가 당하는 고통의 근원이 숨겨진 욕망이나 두려움, 증오와 그릇된 사랑, 자기기만 및 숨겨진 합리화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치유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가려진 가면을 벗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식별하여 때로는 고통과 순교에 이르는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⑤ 개인적으로 평화와 생명을 주는 아름답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영적/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즐기고 가슴에 새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하느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⑥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 즉 그리스도의 생애와 진리와 가치를 자신의 삶의 근본으로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길을 명료하게 도와줄 수 있다.

4. 영성수련과 그리스도 요법

그리스도인이라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현존(골로 2,6)과 성령의 힘을 통하여 자아가 변모되어 신성(神性)을 나누는 사람이다(2베드 1,4).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자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자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느낌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낌은 삶의 전체(질량과 추진력)를 읽어 준다. 느낌이나 정서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알아나가는 과정은 중요하다. 신경증과 중독증을 성장 과정에서 장애보다는 변질(deformation)로 볼 때, 정신역학(力學)적이고 진행적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용은 ‘아이온(Aion)’에서,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수련」의 “기초와 원리”의 첫 문장인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창조적으로 의역하여 사용하였다.

인간의 의식은 ① 보다 높은 단일체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깨닫고... ② 이러한 원천에 대해 마땅하고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③ 지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④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정신이 가장 적절한 단계의 삶과 발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티렐 신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의 각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각 단계의 전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그리스도요법을 설명한다.

예비 관찰

그리스도요법을 영신수련의 과정을 통하여 시작하려는 사람은 먼저 겪고 있는 신경증과 중독증에 대한 철저한 진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증의 중독인 경우에는 영신 수련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와 치유와 생명의 은총이 심리와 중독에서 전환하여 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진전되어 나가도록 영신수련의 네 주간의 과정을 실천한다.

첫째주간

‘영신수련’의 첫째주간의 목표는 죄에 대한 아픔과 눈물의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을 올바로 선택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마르 12,33) 하느님의 사랑스런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첫째주간의 주제는 천사의 죄, 아담과 이브의 죄, 자신의 죄(지옥에 간 한 사람의 죄), 지옥, 죽음과 심판 등이 있다. 이냐시오 성인은 죄에 대해 묵상을 할 때 수련하는 사람은 “수치심과 혼란”과 “자신의 죄에 대해 커져가는 슬

신경증과 중독증을
성장 과정에서
장애보다는
변질로 볼 때,
정신역학적이고
진행적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픔”, “자신의 죄를 깊이 알고 죄를 혐오하도록 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싫어하여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세상의 무질서를 알아보고 세속적이고 헛된 것들 모두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한다. 지옥에 대한 묵상에서 수련하는 사람이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지라도 적어도 지옥 벌의 무서움으로나마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옥의 영혼들이 받고 있는 벌의 혹독함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찬미와 흠숭과 봉사하도록 창조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써 변질된 것을 재구성하여 전환의 시작 과정에서는 죄가 드러나야 하고, 죄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며, 극단적인 공허를 만들고 결국은 공포의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요법-치료사의 주요 임무는 신경증과 중독증 환자로 하여금 치유되어야 할 것을 통찰하고 깨달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실존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환자의 신경증적 또는 중독증적 생활모형의 극단적인 파산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신경증적 또는 중독증적 행동의 저변에 깔린 그릇된 태도와 영상들을 개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취한 예들을 환자 앞에 제시한다.

둘째주간

둘째주간에서는 진정한 통회와 눈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한 존재’가 되는 은총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활을 관상하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

스도께서 싸우신 것을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포용하신 것을 포용함으로 신경증과 중독증의 치유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개인적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묵상, 관상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양식의 선택을 하게 된다.

둘째주간의 주요 주제들

1) 그리스도의 나라

수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향하는-전향) '그리스도의 나라' 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그리스도의 전략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우상과 자기중심-자아로부터 근본적이고도 완전히 초연하도록 초대한다.

그러나 신경증적, 중독증적 변질은 이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그리스도의 나라' 에 대한 자유롭고도 의식적인 선택을 방해한다.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신경증적, 중독증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의 추구를 실현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치유와 완전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2) 치유와 생명을 주는 성삼의 하느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각각 그분께 적합한 흠숭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은 본성으로 일치하여 이해와, 사랑과 활동을 통하여 신앙과 윤리-전환과 심리-중독으로부터의 전환하도록 도와주신다.

성부께서는 세상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돌보시며 죄로 변질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각각 그분께
적합한 흠숭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은
본성으로 일치하여
이해와, 사랑과
활동을 통하여
신앙과 윤리-
전환과 심리-
중독으로부터의
전환하도록
도와주신다.

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을 치유하고 알려주셨고, 성부와 성자는 '실재' 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시어 "예수를 주님이다." (1고린 12,3)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성자와 하나 되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로마 8,16)라 부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넣으시는 선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자를 만나고,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가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시다(로마 5,5; 2베드 1,4).

하느님은 신경증과 중독증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속박된 무력감을 인정하고, 맑은 정신과 전인적 회복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요한 14,26).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 보여주신 가치를 밝혀주고, 이 가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하여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봉헌하도록 도와주신다. 교회는 성령 강림 축일에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죄 많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목마른 영혼에 당신의 은총을 촉촉이 내려주시어 상처 받은 영혼을 치유해주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어, 흔들리는 우리를 인도해주소서.

3) 육화와 숨겨진 삶

둘째주간 시작에서 수련하는 사람에게 성모 영보, 탄생, 성전에 바침, 이집트로의 피신 및 성전에서의 소년 예수의 발견에 대한 거룩한 신비를 묵상하도록 제안하며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을 청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신경증과 중독증 환자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나약함을 체험하고(히브 4,15), 생애 초기부터 약자, 모욕당하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전체성과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1고린 1,25).”

4) 두 개의 깃발

두 개의 깃발을 목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과 모욕과 겸손한 삶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사탄을 따라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던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선택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치유 받고 치유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알며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확실한 전환의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광 중에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하여 영원히 살아 계신”(히브 7,25)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으로 깊은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5)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

둘째주간의 묵상의 큰 주제는 신분 고찰, 결심, 선택의 순간들로 이어지며 진전된다.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에게 대한 묵상의 기본 정신역학은 “정상인이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독증이나 신경증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과

거나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6) 예수의 공생활

예수의 공생활을 관상하는 목적은 수련하는 사람이 보다 깊게 그리스도-자아를 실현하여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풍요롭고 친숙하게 알고 사랑하도록 하며,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다 완전히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신비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관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치, 조건 없는 사랑의 봉사, 아버지의 뜻에 대한 열정적인 추구, 아버지에 대한 신뢰, 위선과 죄를 미워함, 그분의 기도, 약한 자들에 대한 연민”을 본받도록 불림을 받는다.

공생활에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 통찰하는 이해력을 가진 분이시다(요한 6,64). 자제력과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루가 9,51), 우유부단함이 없이 아버지와 일체감을 가지시고(요한 5,17), 성령의 인도에 따르시며(요한 14,28; 루가 4,1),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고 그를 따르도록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목적을 갖고 결연히 추구하셨다(요한 4,34). 예수님의 영의 맑음은 그분의 영이 선하고 순결하다는 내적인 깨달음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빛을 알아보고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은 비친다. 예수님은 매우 부지런히 일하셨고(요한 4,6), 그 결과에 만족하셨다(마태 11,25). 더구나 그분은 사람들을 떠나 조용히 기도할 때를 잘 아시고 계셨고(마태 14,23),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고통과 배반

죄 많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목마른 영혼에
당신의 은총을
촉촉이 내려주시어
상처 받은 영혼을
치유해주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어,
흔들리는 우리를
인도해주소서.

과 포기를 당하면서 슬픔을 겪으셨지만 종종 고독을 추구하셨다.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의 능력은 강력한 관대성, 끊임없는 이웃에 대한 봉사,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의 친절과 사랑”(디도 3,4)이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증거인 자기희생적인 배려와 관심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창조적이고 깊은 내적인 안정, 힘, 평화와 활력이 넘쳤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수난과 죽음에 직면하셨을 때, 가장 심오한 형태의 인격완성과 지혜의 열매인 수용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마태 16,21-23).

7) 예수님의 공생활과 신경증, 중독증의 치유

예수님은 어떤 정화의식도 필요 없었지만 예수께서 겸손하게 요르단 강물로 들어가신 모습은 신경증과 중독증 환자가 그들의 정서와 중독 대상에 무력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부르는 모델이 된다. 따라서 신경증과 중독증 환자가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인정하면 하느님 아버지는 그들을 흠 없는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지니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

40일 동안 사막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싸우신 것도(루가 4,1-13)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에게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치료자나 치료 집단의 도움을 받아 ‘병자들의 세계’의 파괴적 전술, 전략 및 목표의 가면을 벗겨내고 ‘건강과 완전한 모습의 세계’의 일치와 생명을 주는 방법, 태도 및 목표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도록 길을 안내한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에서 신경증과 중독증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자유와 풍요로운 삶이 넘치는 약

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신뢰의 자세와 희망, 목적과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그들을 엮어맨 태도와 대상들을 버리고 음성을 듣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를 해방과 풍요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현존하신다.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이 현존 의식을 통하여 치유와 생명이 환자들에게도 일어나도록 돕는다. 그리고 성서와 성사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의 진리와 변모를 깨달아 성령의 힘으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한다(2고린 5,17).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 비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의 진리와 가치를 드러낸다.

또한 사람들과 만나시는 그리스도를 관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을(루가 22,59-62) 관상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기도와 이런 만남은 수많은 말로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또 한편,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연의 놀라움으로 자신과 존재의 풍요로움을 전달하신다. 치유자시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역할은 신앙인들을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요 근본이신 아버지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중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루가 11,2)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오한 사명이다.

예수께서 수난과 죽음에 직면하셨을 때, 가장 심오한 형태의 인격완성과 지혜의 열매인 수용의 정신을 보여주셨다.

8) 겸손의 세 가지 단계

선택을 묵상하기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과 둘째 고의로 소죄도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셋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겸손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받고자 하는 자학적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성령의 도움으로 진정한 선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연함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겸손의 세 가지 단계'를 기도 중에 성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신경증과 중독증의 치유에서 '겸손의 세 가지 단계'가 아주 잘 적용된다. 근본적으로, 심리-전환과 또는 중독으로부터의 전환에서 고통에서 고투하는 신경증 환자와 중독증 환자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고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감(感)을 체험한다. 가난한 그리스도, 업신여김 당하는 그리스도, 경멸당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근본적 심리-전환과 중독으로부터의 전환을 동반하는 박탈, "굴욕", 철퇴의 고통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9) 선택, 결정 및 발본-전환

이나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방법, 대상 및 시기를 안내한다. 근본적인 윤리-전환이 필요한 죄인은 우상숭배에서 떠나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응답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인은 "새 사람(2고린 5,17)"이 되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에제 11,19).

이미 하느님을 따르기로 독신, 청빈 그리고 순명을 서약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신앙과 윤

리-전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경증적 존재 양식과 행동에서 기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요소들을 다른 것들과 함께 올바르게 식별하고, 자유를 방해하는 강박적인 미묘한 편견이나 애착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유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심이 치료의 성패를 결정한다.

중독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중독자는 신경증의 치유에서보다 결심이 복잡하다. '단주동맹'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우리를 알고 있는 하느님의 배려에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한다. 세 번째 단계의 결심은 중독 치유과정의 결정적인 떠나는-변환점이다. 그러나 중독 대상에 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성숙된 정서적 포기를 포함하는 이러한 "굴직한" 결정 뒤에, 세 번째 단계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있다.

치유자시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역할은
신앙인들을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요
근본이신
아버지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리-전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경증적 존재 양식과 행동에서 기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요소들을 다른 것들과 함께 올바르게 식별하고, 자유를 방해하는 강박적인 미묘한 편견이나 애착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유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심이 치료의 성패를 결정한다.

중독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중독자는 신경증의 치유에서보다 결심이 복잡하다. '단주동맹'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우리를 알고 있는 하느님의 배려에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한다. 세 번째 단계의 결심은 중독 치유과정의 결정적인 떠나는-변환점이다. 그러나 중독 대상에 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성숙된 정서적 포기를 포함하는 이러한 "굴직한" 결정 뒤에, 세 번째 단계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있다.

셋째주간

'영신수련'의 셋째주간은 수난과 죽음의 신비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로마 6,3-4).

바오로 사도는 여기에서 인간이 죄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근본적인 전환을 묘사하고 있다. '영신수련'의 마지막 두 주간 동안은 수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난하

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관상함으로써 그들이 죄로 인한 온전한 죽음을 확인하고 남아있던 모든 죄에서 ‘떠나는-변환’을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부활의 신비에 쌓여 계신 그리스도를 관상하여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신비를 자주 생각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더욱 충만히 받아” 신앙의 변모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깃든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냐시오 성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고통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수난 중에 슬픔에 잠긴 그리스도와 함께 슬픔을 겪고, 아픔, 눈물과 깊은 비탄에 잠긴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간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랑이 깃든 지식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말씀에 이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최후의 만찬과 비탄에 잠기시고 조롱과 가시관과 십자가를 지고 죽고 묻히는 예수님을 관상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 많은 닮은 공통점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자신의 힘든 선택으로 불가피하게 따라올 두려운 결과들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이 된다. 근본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한 사람들조차도 결정을 지지하는 이성과 마음의 빛을 차단하는 순간적인 어두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최후의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결심한 선택을 수행해나가는 결단에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유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심이
치료의 성패를
결정한다.

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견뎌야 할 것이다. 심리적 그리고/또는 중독의 변질로부터 지속적인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신경증 및 중독자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수난하시는 예수님을 심혈을 기울여 관상해서 심한 고통과 어둠의 내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확고하게 하느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형태의 신체적 고통, 언어적 폭력, 거짓 고발과 재판, 제자들로부터의 배척, 삶의 깊은 의미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소명과 순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직면하셨고 ‘골고다’로 향한 그의 얼굴에서 결연함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힘과 초연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초연함은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가장 근본적인 초연함으로 불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초연함은 죄인,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의 지속적인 전환에서 떠나는-변환의 심화, 공고화의 핵심이다.

넷째주간

영신 수련에서 넷째주간은 예수님의 부활 후 사람들에게 발현하여 관상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삶을 새롭게 변모되는 것을 관상하게 되는데, 주제로는 하느님의 주도권, 은총의 인식의 순간과 파견사명의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첫째, 부활 후 발현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발현은

제자들이 모든 은총을 깨달아 내적인 태도와 느낌의 변모가 일어나게 한다. 루가복음서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보면,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대해 “침통해” 있었고(루가 24,17),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꺾어야 하는 고난”(루가 24,26)을 상기시켜 주었고, 두 제자는 감동되었고, 식탁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루가 24,30-32) 줄 때 눈이 열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발현은 낙담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기쁨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고, 혼란과 오해가 있던 곳에 이제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게 한다.

지속적인 전환 상태에 있는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도 제자들처럼 하느님의 도움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던 과거의 사건이나 고통의 의미에서 하느님의 현존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된다. 과거의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지속적인 심리-전환과 중독으로부터의 전환에서 부활과 같은 체험의 빛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한, 과거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이해의 결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회복되거나 회복 중인 사람도 과거에 대한 태도에서 심오한 변화를 하고 이에 따른 낙담과 거절감은 기쁨, 열정, 수용, 감사와 사랑의 느낌으로 변모하게 된다.

요한 복음서에서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는 단순히 “마리아”하고 부르셨습니다(요한 20,16). 이런 계시적 목소리를 듣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사랑스럽게 매달렸다. 여기에서 다시 태도와 느낌에서 강력한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슬픔과 혼동이 있었던 곳에 이제

초연함은 죄인,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의 지속적인
전환에서 떠나는—
변환의 심화,
공고화의
핵심이다.

는 기쁨과 믿음, 위대한 사랑이 있다.

회복되거나 회복 중인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스스로 지속적 전환에서 정신적 신체적 기본적인 건강 기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보다 높은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그리스도요법-치료사는 지속적인 신앙과 윤리-전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도달하려는 초월의 나선형의 상승단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신앙과 윤리-전환에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금욕적인 면과 밝고, 결합력이 있고, 신비적 진전이 일어나는 지속적 신앙과 윤리-전환에서 후기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구체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 추구하도록 하는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부활 후의 예수님의 발현은 “파견 사명”이 주어진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라는 사명을 주셨다(요한 20,19-23).

지속적인 전환에서 향하는-전환단계가 나선형식 상향을 하면서 발본전환한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받은 치유와 완전한 모습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불림을 받는다. 단주동맹의 12단계에서 “12단계의 결과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알코올중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회복되거나 회복 중인 신경증 및 중독증 환자는 아직도 무가치감에 휘말려있거나 약물, 도박, 기타 중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의 이상적 선교사가 되도록 특별한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해 및 사랑의 능력

을 종종 선물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12번째 단계가 나머지 11단계의 자연스럽고도 궁극적인 종착역이 되는 이유가 된다.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은 거룩한 기도체험이다. 이유는 수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 상상력, 이해와 의지를 이용하도록 하며 느낌에 대한 보다 깊은 훈련과 변모의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에 대하여 이냐시오 성인은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고”, “사랑은 좋은 것을 주고받는 것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랑받는 이에게 선사하고 나누며, 사랑받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상기시킨다. 이냐시오 성인의 이러한 지적은 단주동맹이나 유사한 그룹에서의 12단계 중의 12번째 단계의 특징인 봉사하고 나누고자 하는 활력이 있는 열망과 같다.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은 특별한 생명을 주는 진리와 가치에 대한 실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계시된 진리나 가치의 실존을 인식하게 하고, 깨닫지 못한 이해, 마음, 상상력 및 영-충만하기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게 한다.


5. 결론

영성생활을 통하여 하느님과 좀 더 깊은 결합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이나 스스로의 장애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의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성과 정신-심리 치료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는 심리적으로 또는 중독증으로 인하여, 그 증세가 심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와 정상인으로 간주되지만 작은 증상으로 자유로움에 부분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움을 제공할 수 것이 그리스도요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그리스도요법이 새로 발견된 이론이 아니고,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이 전승의 보물이 현대 과학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버나드 티렐 신부의 그리스도의 요법을 소개하면서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의 영광 즉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성삼의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잘 안내해 줄 그리스도요법-치료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영성지도를 하는 사람들과 심리-정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Anatomy of the Spirit”의 저자인 Caroline Myss 박사 같은 분들도 하느님의 신비의 힘을 이용하여 육체적인 병까지도 진단 치료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의 칠성사와 삶을 연관시켜 삶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도 또한 영성과 건강과의 관계 등은 권장되어야 할 새로운 시도라고 사료된다. 

그리스도요법은 새로 발견된 이론이 아니고,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현대 과학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